



제18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차클

학습 내용



학습 기간

23. 10. 4. ~ 11. 1.

팀 원

김수빈, 최빈아, 허중경, 노효진 (미래융합대학 23학번)



학습 일자

| 날 짜 | 시 간 | 장 소 | 학습활동 내용 |
|---------|-------------|--------------|---|
| 10월 04일 | 17:00~19:00 | 해룡학사 셀프주방 | 평형 조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평형 상수 K를 공식에 맞게 구한 뒤 평형 상수를 응용한 반응의 진행 정도를 구하고 반응 지수 Q를 계산하여 평형 상수 K와 비교했다. 르사틀리에의 원리가 농도 변화, 압력 변화,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도 이해하는 과정을 가졌다.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서로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설명해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을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
| 10월 11일 | 16:00~18:00 | 해룡학사 셀프주방 | 산과 염기의 성질을 이해한 후 산 해리 반응들을 알아보았다. 산 해리 반응들을 통해 산 해리 상수의 값을 알아낼 수 있었다. $pH+pOH$ 의 값은 항상 25 에서 14이기 때문에 이 값을 이용하여 pH 나 pOH 의 값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강산, 약산 등의 pH 를 구하는 방법을 팀원들끼리 차례대로 구한 다음에 서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고 자료준비가 미흡하여 모르는 것을 배워가는데 오래걸려 어려움을 느껴 다음 소모임부터는 복습을 한번 더 해오기로 했다. |
| 10월 19일 | 16:00~18:00 | 해룡학사 셀프주방 | 약산 HA와 짝염기 A-, 또는 약염기 B와 그 짝산 BH+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산화 이온과 약산의 반응은 완결된다고 가정하고, 남은 산과 생성된 짝염기의 농도를 결정하는 화학량론 문제가 있고 약산의 평형의 위치를 결정하고, pH 를 계산하는 평형 문제가 있으며, 약산-염염기 적정에서 pH 곡선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약산을 선택염기로 적정했을 때 당량점에서의 pH 는 항상 7보다 크다는 결론도 내릴 수 있었다. 강의시간에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이론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여 뒤에 있는 응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각자 해오기로 하였다. |
| 10월 26일 | 16:00~18:00 | 해룡학사 셀프주방 | 물에 녹아있는 고체에 대해 학습했다. 이온의 혼합물에서 선택적 침전으로 이온들을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하는 방법은 먼저 HCl을 첨가한 다음 H2S를 첨가하고, 다음으로 NaOH, 마지막으로 Na2CO3를 첨가하여 이온들을 각각의 족으로 분류한다. 각 족에 속하는 이온들을 분리한 다음, 추가적인 선택적 용해와 침전을 이용하여 각 이온을 확인했다. 멘토멘티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이해가 안되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어 좋았다. |
| 11월 01일 | 16:00~18:00 | 해룡학사 셀프주방 | 반응에 대한 표준 자유 에너지 변화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 변화로부터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유 에너지는 온도와 압력에 의존하며 이 관계식은 반응에 대한 반응물과 생성물의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 변화 값과평형 상수 값 K 사이의 관계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각자 부분을 맡아 발표하여 강의식으로 공부하여 유익했다. |



활동 사진



활동 소감

종합의견

소모임을 하면서 장점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다같이 의논하며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화학이라는 교과목이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고 꾸준한 복습이 필요한데 같이 함으로써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서로에게 좋은 원동력이 되어주고 지칠 때 옆에서 격려를 해주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효율이 더 좋았으며 소모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발표도 같이 진행하고 멘토 멘티도 진행했기 때문에 공부뿐만 아니라 발표능력도 향상되는 시간이었다. 화학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계산식에 대해 제대로 된 학습을 하여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한 학기 조금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 알찬 2학기를 보낼 수 있었고 다음에 교과 소모임을 할 기회가 또 생긴다면 다른 어려운 교과목도 소모임을 통해 동기부여를 얻고 싶다.

김수빈

교과 소모임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나혼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친구들과 의논하며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점이었다. 화학이라는 교과 자체가 어렵다보니 소모임을 통해 해결해 나가 교과 성적을 올리는데에 있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최빈아

작년에 식품공학을 혼자 공부하면서 꽤 어려움을 겪었는데, 소모임을 통해 다같이 풀어나가니 훨씬 이해하기 좋았고, 팀원들이 원동력이 되어 전보다 더 식품공학을 공부했던 것 같아서 아주 좋은 모임이었다.

허중경

화학 과목 특성상 수업 내에 단번에 이해하기 어렵고, 꾸준한 복습이 필요한데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며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모르는 내용을 인터넷 검색이 아닌 서로에게 물어보며 추론해 나아가는 과정이 즐겁고 뿌듯했다. 다음에 교과 소모임을 할 기회가 또 생긴다면 다른 어려운 교과목도 소모임을 통해 동기부여를 얻고 싶다.

노효진

처음 소모임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과연 소모임을 한다고 학업적인 성과가 있을까, 다들 열심히 참여하려고 할까 등등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다들 화학이라는 과목에 열정을 가지며 성실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많은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다. 서로에게 좋은 원동력이 되어주고 지칠 때 옆에서 격려해주는 동기들이 있으니 혼자 공부할 때보다 효율이 더 좋았던 것 같다. 한 학기 조금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 알찬 2학기를 보낼 수 있었다.



제18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성적올려야조

학습 내용

일반생물학 II

학습 기간

23. 10. 4. ~ 11. 7.

팀 원

박시은, 박은후, 신영혜 (미래융합대학 23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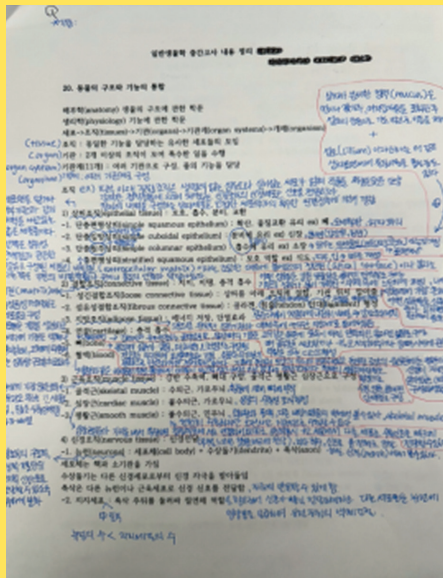


학습 일자

| 날 짜 | 시 간 | 장 소 | 학습활동 내용 |
|---------|-------------|-----------|---|
| 10월 04일 | 19:00~21:30 | 과학관 105호 | 조직의 정의와 종류에 따른 각각의 기능까지 학습하고 암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으로 구성된 각 기관과 기관계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실제 생명공학자들이 인공심장과 같은 이식용 기관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요한다는 부분도 함께 학습하였다. |
| 10월 11일 | 19:00~21:00 | 과학관 지하휴게실 | 동물 먹이 섭취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학습하며 큰 틀을 잡고 세세하게 소화의 두 가지 기전인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를 알고 소화가 일어나는 전영 구역을 전체적으로 공부한 후 세세하게 추가 학습하였다. 소화계의 개층의 구조와 기능 소화 효소의, 분비로 인한 영양소의 분해작용도 함께 학습하였다. |
| 10월 18일 | 12:00~14:00 | 과학관 테라스 | 사람에서의 기체교환인 호흡 체세포로의, 기체운반과 교환을 알고 사람을 포함한 동물은 축축한 체표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다는 것을 학습했다. 어류와 곤충에서의 호흡 과정이 포유류에서의 호흡 과정과 다름을 알고 심화 학습을 진행하였다. |
| 11월 01일 | 12:00~14:00 | 과학관 219호 | 화학신호 전기신호에, 대한 신체 기능 조절을 공부하였다. 척추동물 중에서도 사람의 호르몬계에서 12개 이상의 주요 호르몬을 알고 각 섬에서 어떤 호르몬이 어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암기도 함께 진행하였다. |
| 11월 07일 | 13:00~15:00 | 미래관 408호 |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생산하는 무성생식과 유전적으로 독특한 자손을 생산하는 유성생식을 기본으로 하여 무성생식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학습하였다. 사람에서의 유성생식을 학습하기 위해 여성생식계와 남성생식계의 구조와 각 구조의 기능을 학습하고 gamete 운반구조와 정자와 난자의 meiosis과정에서의 차이점 또한 함께 학습하고 암기하였다. 그리고 호르몬에 의한 난소와 자궁의 주기적 변화 과정까지 함께 암기했다. |



활동 사진



활동 소감

종합의견

1,2학기에 이어 학기 소모임을 함께 진행하며 일반생물학 과목을 공부하였다. 학기에는 구성원들이 모두 기숙사생이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맞추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지만 학기 소모임에서는 통학생과 기숙사생의 시간을 조율하는데도 소모임을 진행하는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초반에 이러한 문제로 더디게 진행된 점이 아쉬웠지만 각자가 맡은 공부 내용과 과제를 잘 준비해줘서 오히려 1학기때보다 훨씬 재밌고 쉽게 이해하며 공부할 수 있었다. 전공 선택 기간이 다가오면서 전공 선택 고민에 대한 부분도 소모임 친구들도 함께 나누며 이야기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소모임 과목으로 선정한 일반생물학 과목뿐만 아니라 일반생물학실습 일반화학실험 일반화학 등의 내용도 서로 함께 배움을 공유하는 과정이 매우 뜻깊었다. 시험기간에는 서로가 정리한 요약본을 공유하여 공부하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남은 기말시험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함께 모여 소모임을 진행할 것이다.

박시은

처음으로 깊게 배우는 생소한 공부를 혼자 진행했다면 시험을 위한 공부만 하기 급급했을건데 동기들과 함께 소모임으로 공부를 진행해서 공부다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과정을 순서대로 알고 그 과정에서 쓰이는 호르몬이나 기전, 장소 등을 세세하게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암기해서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박은후

이번 소모임 과목인 일반생물학은 많은 양의 암기를 정확하고 세세하게 했어야 했는데, 소모임 활동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설명하고 개념의 오류를 확인하는 가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는 과목이지만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과목에 대한 흥미를 찾으며 공부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다.

신영혜

소모임 활동을 통해 내가 공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습한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어 내 것으로 지식이 습득된 점이 좋았습니다. 스터디 모임을 주마다 함으로써 공부의 진도가 밀리지 않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고 같이 공부를 함으로써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고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18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조화

팀 원

김나영, 박혜원, 안재서, 박수영 (미래융합대학 23학번)

학습 내용

일반화학

학습 기간

23. 10. 6. ~ 11.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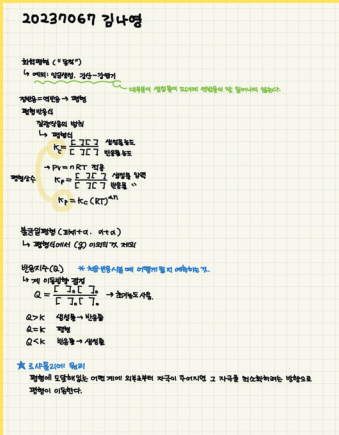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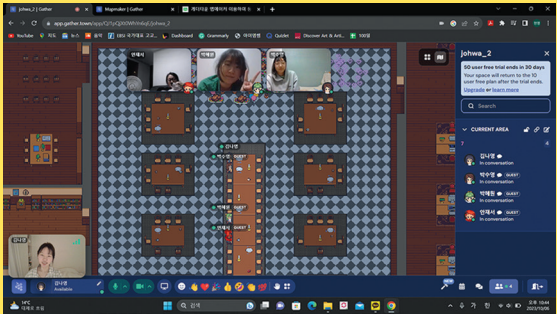


학습 일지

| 날 짜 | 시 간 | 장 소 | 학습활동 내용 |
|---------|-------------|------|---|
| 10월 06일 | 20:34~22:44 | 게더타운 | 공부에 앞서, 게더타운 사용 경험이 없는 팀원과 사용법을 익히고, ‘오피스’ 공간을 생성하고 커스터마이징 사용해보았다. 그다음에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화학 평형, 열역학 범위를 학습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함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추가 학습을 진행했고, 교과서에 첨부된 예제를 풀이하며 이론을 점검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 학습 내용을 노트 요약 정리해 공부 내용을 복습했다. |
| 10월 13일 | 20:33~21:37 | 게더타운 | 우선, 반응지수의 정의와 평형 문제의 해결법, 르 샤틀리에 원리를 교과서 정독 방법으로 공부하고, 교과서 예제 문제를 통해 이론을 이해하였다. 또한, 산과 염기의 성질에 대하여 공부하고 루이스 산 염기와 아레니우스 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하였다. 유튜브 영상을 시청으로 유호숫자(significant figures)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엔트로피와 Gibbles 자유에너지 단원의 예제 문제를 풀어보며 학습하였다. |
| 10월 27일 | 20:38~22:37 | 게더타운 |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방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앉은 후, 각자 다음 화학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인 공통이온 효과와 물리 평형을 예습했다. 교과서를 통해 이론을 요약하며 개념을 파악했고, 강의를 들으며 이해한 이론을 노트에 정리한 뒤 이를 유튜브에서 찾은 강의 영상과 비교해보며 추가 학습을 진행했다. 교과서 예제 문제를 각자 풀어본 뒤 모르는 문제를 공유하고 서로 알고 있는 부분은 설명해주고 풀이법을 함께 찾아보며 해결하였다. |
| 11월 03일 | 20:36~21:39 | 게더타운 | 중기압력 파트를 공부하고 문제를 풀이했다. 저번에는 영상만 시청하고 문제를 풀이기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책으로 개념을 다시 처음부터 읽으며 문제를 풀었고, 팀원과 질의응답을 진행해 저번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 또한 이해 가능했다. 이후에는 책에 밑줄을 쳐가며 이론을 복기했고, 일반화학1과 연관된 개념은 유튜브로 개념 설명 영상을 찾아봐, 현재 이론과 어떤식으로 연계되는지 확인했다. |



활동 사진



활동 소감

종합의견

우선, 스터디를 진행하며 잘 모르는 분야를 낯설고 두렵게 느끼는 마음을 덜 수 있었습니다.

조화 팀은 메타버스를 이용해 일반화학2를 학습했지만, 메타버스나 일반화학이나 낯선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게더타운 조작법을 몰라 헤매거나, 일반화학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돼 헤매기도 했지만, 함께 인터넷을 뒤져 해결법을 찾아내고,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니 낯설고 두려운 마음이 훨씬 적었고, 그 결과 이전보다 많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정한 주기로 만나 학습하니 매주 일반화학2 내용을 예습하고 복습하는 이로운 습관도 들일 수 있었습니다. 독학했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다짐이 깨지기가 쉬웠는데, 함께 스터디를 진행하니 나를 강제성이 생겨 조금 피곤하더라도 일어나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과는 함께한 덕분에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학습법 소모임을 신청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나영

저번 학기 일반화학1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학기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습법 소모임을 하며 친구에게 질문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그 걱정을 훨씬 덜었고, 만족할 만한 성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소모임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혜원

평소 공부를 미뤘었다 전날 벼락치기로 몰아서 한 번에 하는 편이라 항상 미리 해둘 걸 하고 후회했었는데. 소모임을 통해 주마다 게더타운을 이용하여 화학 공부를 하여 여유롭게 시험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족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조원들과 토론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안재서

자유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라든지 취미 생활처럼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소모임으로 시간을 정해두고 학습하니 훨씬 공부하기가 좋았다. 또한, 친구와 서로 물어보고 답하는 과정이 많은 도움이 된 듯하다.

박수영

화학 소모임 활동을 통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어서 이론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예제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부분을 공유하고 서로 설명해주며, 개념을 응용하여 문제에 적용하는 법을 익힐 수 있었다.



제18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대.수.(대학수학)가 대수인가

학습 내용

대학수학

학습 기간

23. 10. 27. ~ 11. 17.

팀 원

김민지, 정채원, 이채연, 이혜린 (약학과 23학번)



학습 일지

| 날 짜 | 시 간 | 장 소 | 학습활동 내용 |
|---------|-------------|----------|--|
| 10월 27일 | 18:00~20:00 | 과학관 102호 | 함수와 극한 단원을 조원들과 함께 공부하였다. 미분적분학을 공부하는 첫 활동인 만큼 미적분학의 토대를 잘 다지기 위해 함수 값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극한에 근접하는 지를 공부했다. 이를 통해 역동적인 미적분학의 특성을 이해하였다. 개념을 함께 익힌 후에는 고난도의 연습문제를 함께 풀이하며 익힌 개념들을 체득하였다. |
| 11월 03일 | 18:00~20:00 | 과학관 102호 | 미분의 정의 및 도함수의 정의를 여러 그림과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서 이해했다. 개념 문제부터 활용 부분이 나오는 미분 심화 문제까지 다루며 조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며 풀어냈다. |
| 11월 10일 | 18:00~20:00 | 과학관 102호 | 적분은 함수의 면적을 구하는 것으로 적분을 통해 회전체의 곡면 넓이, 원통겉질에 의한 부피, 호의 길이 등을 구할 수 있다. 이때 적분법의 종류도 부분적분법, 치환적분법, 삼각치환법, 부분분수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적분의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다. |
| 11월 17일 | 18:00~20:00 | 과학관 102호 | 급수 단원에 대해 교과수업시간에 학습한 개념을 함께 복습하며 적절한 이해를 진행했는지 돌아봄으로써 급수가 수열과 극한 단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여러 가지 판정법을 통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습하였다. 또한 전 교과시간에 학습한 테일러 다항식 관련 내용을 급수에 적용하여 거듭제곱급수, 근사 적분 등의 내용을 학습하였고 관련 문제를 충분히 풀이해 확실한 공부를 진행하였다. |



활동 사진



활동 소감

종합의견

대학수학 과목을 배우기 전에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난이도로 학습을 하고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이 같은 동기들을 모아 함께 대학수학 교과목을 학습하고 서로 도움을 줄 소모임을 구성하여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인 학습 방법은 교과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함께 복습하며 서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헷갈리는 부분을 물어보고 추가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혼자 학습했다면 어려움이 있었을 내용을 함께 논의하며 학습하다보니 더 빠른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개념의 이해뿐만 아니라 추가로 문제 풀이까지 진행하여 개념의 이해가 올바른지, 잘 응용하여 사용할 능력이 있는지를 각자 평가한 뒤, 함께 자신의 문제풀이 결과와 주요 문제들의 풀이를 공유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풀이를 찾아나가고 더욱 정확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습법 소모임을 만든 이유가 ‘함께’ 더욱 효율적인 대학수학 학습을 진행하기 위함이었는 데, 이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룬 것 같습니다. 물론 소모임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학습 방법이나 소모임 진행의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소모임을 4회 동안 진행해가면서 이 아쉬운 점을 개선해나가며 학습하여 더욱 효율적인 스터디를 위한 기술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김민지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공부하기는 했었으나, 수학 문제를 안 풀지 약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교과스터디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원분들께 모르는 문제를 질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고 덕분에 왜 그런 공식이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다들 시간이 된다면, 같이 교과스터디 활동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채연

초, 중, 고 시절에 쌓아 온 공식 암기식의 풀이법에서 벗어나, 정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체득하는 풀이법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혼자 시간을 내어 공부를 시도했다면 내지 못했을 성과였다. 개인적으로 수학이라는 과목을 좋아하지 않는데, 소모임을 통해 조원들과 함께 공부하며 흥미를 잃지 않고 대학수학 과목을 수학할 수 있었다.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들을 수학을 잘 하는 조원들에게 질문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동기와의 유대도 쌓으며 학업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여러모로 뜻깊은 활동이었다.

정채원

배우는 과목들 중 가장 멀고 어렵게 느껴진 과목이 ‘대학수학’이었다. 혼자 고민해보고 씨름해보도 잘 안되는 것이 수학이었는데 이번 소모임에서 동기들로부터 세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수학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감까지 조금 더 생긴 것 같아 유익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혜린

대학수학 교과목을 스터디를 진행하며 혼자 공부했다면 놓쳤을 여러 개념적인 오류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가장 효율적인 풀이를 함께 탐구할 수 있었다. 함께 학습하면 혼자 학습하는 것에 비해 공부의 형식과 소통에 있어 제한이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정해진 규칙을 이번 학습법 소모임처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 더욱 정확하고 깊이있는 이해를 할 수 있고 과목의 실력도 늘 수 있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제18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비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꼬순내

학습 내용

컴퓨터 활용 능력

학습 기간

23. 10. 6. ~ 11. 24.

팀 원

서희원 (의생명과학과 21학번)
양성민 (의료홍보미디어학과 21학번)
김유빈 (식품생명공학과 20학번)



학습 일지

| 날 짜 | 시 간 | 장 소 | 학습활동 내용 |
|---------|-------------|---------|--|
| 10월 06일 | 19:04~21:47 | ZOOM | 1과목-컴퓨터일반 과목을 공부하여 이론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발표를 진행한다. |
| 10월 13일 | 18:58~20:34 | ZOOM | 2과목-스프레드시트일반 과목을 공부한 후에 2명이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한다. 발표가 끝난 뒤 다른 한명이 빈출 내용을 짚어두면서 복습을 진행한다 |
| 11월 11일 | 19:22~22:22 | ZOOM | 3과목-데이터베이스일반 과목을 공부한 후에 2명이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한다. 이때 발표 형태는 퀴즈 형태로, 대표 퀴즈 풀이 후 15분간 교재 복습을 진행한다. |
| 11월 24일 | 21:41~22:56 | ZOOM | 엑셀 함수에 대한 퀴즈 및 교재 내 기출문제 풀이 인증을 진행 한 뒤, 마지막 회차의 기출변형문제를 60분 시험시간에 맞춰 풀 뒤, 각자 점수 결과 공유 및 이후 일주일간 공부계획 피드백 |
| 12월 | - | 대한상공회의소 |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시험 |



활동 소감

종합의견

서로 공부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각자 배운 내용을 퀴즈로 만들어 서로 풀어보는 식으로 소모임을 진행했는데 승부욕 때문에 발표만 할 때 보다 더 집중이 잘되었고 회의 이후에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매 회차 끝난 뒤 활동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다음 주차에는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피드백을 하면서 우리가 만든 소모임 활동을 제대로 끝맞치고 싶은 마음과 조원들간의 협동심이 생겼다.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에도 이점이 있지만 단체로 공부를 하는 소모임 형식의 최대의 이익을 보았다.

서희원

이전에 2급을 따고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함께 1급에 도전하자고 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급따고서 1급도 쉽겠지 생각했는데 1급이 생각보다 심화 내용을 다뤄서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소모임 활동을 진행하면서 발표 준비 및 피드백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들 열심히하는 모습에 동기부여 받아서 잘 참여한 것 같습니다.

양성민

시험기간과 병행하여 진행하여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친구들의 격려와 도움 덕에 잘 진행한 것 같다 벌써 두번째 소모임인데 여러가지 공부 같이 해나가보고 싶다.

김유빈

1급 필기를 하게 소모임에서는 아쉽게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성과를 내어서 매우 기쁘다. 소모임 한 번 할 때마다 자격증 하나씩 얻어가는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동계 소모임 때는 개인적으로 취득하고 싶은 식품조리사 자격증을 따보고 싶다.



활동 사진





제18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비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나도 성적장학금 받고 싶어

학습 내용

토익

학습 기간

23. 10. 2. ~ 10. 26.

팀 원

윤지현, 김민지, 안해운, 한지성 (의생명과학과 21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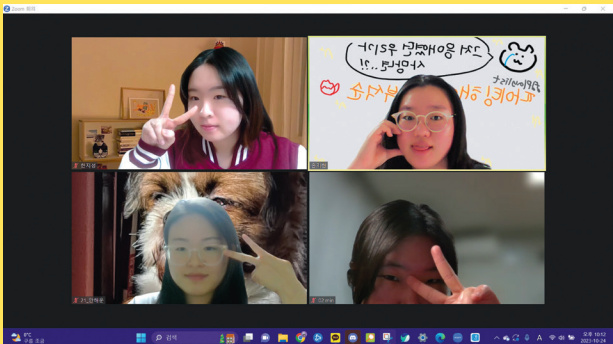


학습 일지

| 날 짜 | 시 간 | 장 소 | 학습활동 내용 |
|---------|-------------|------|--|
| 10월 02일 | 20:02~22:01 | ZOOM | -LC 기출 공식입문서 Day1,2 파트 -자주쓰이는 표현이 들어간 기출문제 -틀린 문제 오답 -오답 단어장 만들기 |
| 10월 09일 | 20:06~22:10 | ZOOM | -RC 기출문제 day1~7 개념문제 풀기 -문법-부사 이해하기 -멘토의 공부팁 소개하기 |
| 10월 16일 | 20:02~22:06 | ZOOM | -LC 기출문제 day8~14 개념문제 풀기 -LC 빈출 단어 및 발음 정리 -단어 암기 팁과 지문 들을때 유의해야하는 팁 소개 |
| 10월 24일 | 20:07~22:12 | ZOOM | -RC 기출문제 day8~14 개념문제 풀기 -전치사, 동사의 종류와 형태 구문 문제 심화공부 -주어와 동사의 수 일치 심화 공부 |



활동 사진



| | | | |
|--|---|---|---|
| Part3 1. 목적지침을 읽는 능숙함과 언어감이 내는 상호작용 What is the problem? What is the best solution? What problem does the speaker mention? What is the best solution? What is the speaker's attitude? | | | |
| 2. 1. What is the problem? 2. What is the best solution? 3. What problem does the speaker mention? 4. What is the best solution? 5. What is the speaker's attitude? | 2. 1. What is the problem? 2. What is the best solution? 3. What problem does the speaker mention? 4. What is the best solution? 5. What is the speaker's attitude? | 2. 1. What is the problem? 2. What is the best solution? 3. What problem does the speaker mention? 4. What is the best solution? 5. What is the speaker's attitude? | 2. 1. What is the problem? 2. What is the best solution? 3. What problem does the speaker mention? 4. What is the best solution? 5. What is the speaker's attitude? |
| 2. 1. What is the problem? 2. What is the best solution? 3. What problem does the speaker mention? 4. What is the best solution? 5. What is the speaker's attitude? | 2. 1. What is the problem? 2. What is the best solution? 3. What problem does the speaker mention? 4. What is the best solution? 5. What is the speaker's attitude? | 2. 1. What is the problem? 2. What is the best solution? 3. What problem does the speaker mention? 4. What is the best solution? 5. What is the speaker's attitude? | 2. 1. What is the problem? 2. What is the best solution? 3. What problem does the speaker mention? 4. What is the best solution? 5. What is the speaker's attitude? |



활동 소감

종합의견

자신이 취약한 파트의 주차 멘토를 맡아 스스로 공부하고 스터디원들에게 알려주는 활동을 하면서 셀프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터디 주차별 멘토는 2주차 안해운, 3주차 한지성, 4주차 김민지 학생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1주차로 공부했던 내용으로 단어장을 만들고 오답률이 높았던 단어는 따로 오답 단어장을 만들었다. 각자 멘토가 되어 다양한 토익 풀이 팁과 오답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가장 유익했다. 혼자만의 공부보다는 여러명이서 분야를 나누어 소개하다보니, 더욱 집중을 잘 할 수 있었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었다. 또한 틀렸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와 멘토가 전달해주는 비슷한 문제를 푸는 팁을 공유받으면서 오답에 더욱 확실히 대비를 할 수 있었다. 각자의 특성별로 소개할 수 있는 팁이 달라서 여러 문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다. 다들 익숙해지면서 매일매일 토익을 공부하게 되었고, 공부에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바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 각자가 취약한 부분을 찾고 극복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문법에서 놓친 부분들을 서로 설명하고 보완할 수 있었다.

윤지현

멘토가 책임감을 갖고 스터디원에게 공부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는 스터디 방식이었기 때문에 더욱 많이 공부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플래시카드를 통해 영단어를 학습하면서 보다 쉽게 암기를 할 수 있었다.

한지성

토익학원에서 배운 팁들을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뿌듯했고, 문제를 풀고 관련 단어들을 정리해 외출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단어를 폭넓게 암기할 수 있었다.

안해운

LC 듣기에서 핵심적으로 들어야하는 부분을 잘 몰랐는데, 여러번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감을 익힐 수 있었다. 또한 Todo앱으로 각자의 공부목표를 확인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서 공부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었다.

김민지

문법 파트에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채울 수 있어서 좋았다. 평소 단어를 암기할 때 금방 까먹는 일이 빈번했는데, 이번 단어 암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단어들을 오래 기억할 수 있어서 다음 번에도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제18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비교과스터디]

우수팀 명

운명을 달리한 20

학습 내용

논문 스터디

학습 기간

23. 9. 30. ~ 11. 30.

팀 원

권미르, 박상준 (의생명과학과 22학번)
김기윤 (의생명과학과 20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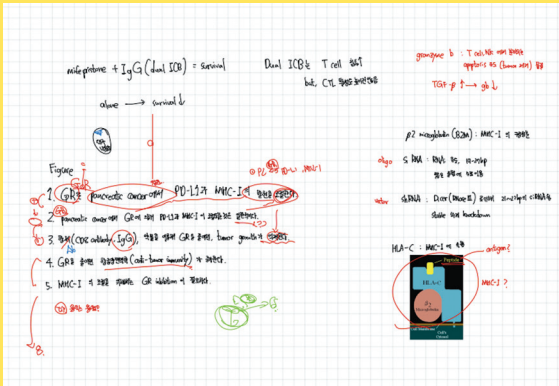


학습 일자

| 날 짜 | 시 간 | 장 소 | 학습활동 내용 |
|---------|-------------|-------------|--|
| 09월 30일 | 17:00~19:00 | 여의도 이룸 스티디룸 | 각자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탐색을 실시하고 논문을 읽기 전, 고려해야할 부분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였다. 사전에 각자가 읽어보았던 논문 또는 공부하였던 내용을 발표해보며 개개인이 가진 발표상의 문제점, 개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이야기한다. |
| 10월 21일 | 17:00~19:00 | 서현역 게더 스티디룸 | 각자가 선정한 논문을 읽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서로에게 발표하여 어떤 점을 보완해야할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문을 읽으며 놓치게 된 부분을 서로의 피드백을 통해 알고 최종 발표를 위해 어떤 점을 중요시 하여 논문을 읽을지 의견을 나누었다. |
| 11월 20일 | 17:00~19:00 | 서현역 게더 스티디룸 | Rationale이란 무엇인지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문을 읽을 때 어떠한 점을 중요시 해서 보아야하는지 result의 figure를 해석할 때는 무엇을 생각하며 읽어야 하는지 공부할 수 있었다. 각자가 정한 논문을 keyword를 중심으로 하여 논문의 요점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 11월 30일 | 15:00~17:00 | 미래관 309호 | 각자가 가진 관심분야의 논문을 읽고 이를 PPT로 제작하여 발표한다. 이전에 논문을 읽기 위해 탐구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에서 말하는 주제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발표 이후 궁금한 내용을 발표자에게 물어보며 해당 논문과 개념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활동 사진



종합의견

2023년도 2학기 소모임에 팀을 생성하게 된 계기는 각자의 관심분야에 대해 탐색하고 관련된 논문을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흥미를 이어나가기 위함이었다. 2학년 까지의 학부 지식만을 가지고 관심분야를 설정하는 것과 논문을 읽는 것은 흥미롭지만 막막한 일이었다. 하지만 소모임을 통해 논문을 읽을 때에 어떤 점이 중요한지 토의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공유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었다. 전공지식을 넓히고 논문을 읽는 방법에 대하여 각자가 생각한 바와 그 개선방안을 이야기하며 논문을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논문을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 활동시 이를 발표해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각자의 분야에 대해 이해하고 나아가 서로가 어떤 분야에 확실히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갈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소모임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이후 이와 같은 스터디 소모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 소모임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교내에서 진행되는 학술제와 같은 행사에 참여해보고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권미르

논문을 처음 읽어보는 나에게 이번 소모임 활동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 논문을 어떻게 빨리 읽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읽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논문에서 rationale을 어떻게 찾으며 각자가 정의 내려보는 활동을 통해 완성도 있는 논문 읽기를 할 수 있었다. 또 이를 토대로 전공 분자세포학 강의에서 발표를 진행해보며 figure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가려내는 활동으로 논문의 요지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다. 각각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으나 그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 정말 많아 스스로가 더욱 발전함을 느낄 수 있었다. 논문을 처음 읽는 활동이 이런 영양가 있고 정말 좋은 활동이라 첫 갈피를 좋게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를 활용하여 전공 공부를 하거나 실험을 진행했을때 참고할 논문을 빠르게 선정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에 대한 요지를 뽑아내는 능력이 향상되었기에 비교과 스터디 소모임이었음에도 교과적으로 상당히 도움되었던 시간을 가지게 되어 좋았다.

김기윤

논문을 읽기 위해서 나의 관심사를 생각해보고 직접 논문을 선정하는 과정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기존에는 마냥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관심사의 논문을 읽어보고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알 수 있었고, 이 분야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분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논문을 읽어보며 기존에는 그저 영어를 번역하며 읽고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만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 논문 내의 Rationale과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며 읽는 방법을 서로의 의견을 내며 정리해나갈 수 있었고, 논문에서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소모임을 진행하며 학부 공부와 병행하며 새로운 과제를 한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작용했으나 이를 겪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부 공부에서는 배울 수 없는 나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준비된 논문을 서로에게 발표하고 실제로 학부 수업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발표해 봄으로써 논문을 읽는것에 대한 자신감과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 때문에 이후에도 이러한 소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적극 활용하여 나를 더 발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박상준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논문에 대한 마냥 어렵다는 생각을 조금씩 지우게 됐다. 논문을 읽을 때 그냥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논문이 의미를 가질까?’와 이 논문이 말하고 싶은 논리 구조가 무엇인지 찾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었다. rationale이 무엇인지 찾는 연습을 하고 figure를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과 중요 부분만 보는 연습도 할 수 있어 좋았다. 사실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번 여름방학 소모임에서 진행할 때보다는 실력이 향상된게 느껴지기 때문에 뿌듯함이 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읽은 논문을 바탕으로 전공 수업인 분자세포학에서 발표를 할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논문을 그냥 읽는 것 뿐만 아니라 이해한 것을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 파악과 논리 구조를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을 다 종합해보면 그냥 논문을 읽은 것이 아닌 이것을 전공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

2023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비교과스터디]

학습 기간

23. 10. 4. ~ 11. 24.

김정민, 황규민(미래융합대학 23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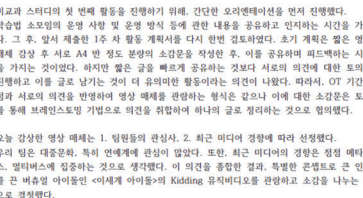


학습 일지

활동 소감

소모임 활동을 하며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었으며 감정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금쪽같은 내 새끼”에 대한 초기 부정적인 시각은 친구의 긍정적인 설득문을 통해 변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설득의 강력한 영향력을 깨달았습니다. 버추얼 아이돌 뮤직비디오 평가를 통해 메타버스와 AI에 대한 저의 열정을 탐구했고,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행문 작성에서는 진솔한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취업용 자기소개서 작성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시각을 넓히고 나의 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활동 사진





제18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전공튜터링]

우수팀 명

지구의 주인공은 미생물(지주미)

학습 내용

마생물학 II

학습 기간

23. 11. 6. ~ 11. 27.

팀 원

튜터 : 박태현 (약학과 21학번)

튜티 : 김미행, 박가영, 나수빈, 김우림, 오승범



학습 일지

| 날 짜 | 시 간 | 장 소 | 학습활동 내용 |
|---------|------------|----------|---|
| 11월 06일 | 9:00~11:00 | 과학관 휴게실 | 다양한 병원미생물 중 바이러스 유래 질환에 대해 학습함. 각자 스스로 목차정리를 하며 내용정리를 하고 최적화된 목차를 의논해 개인학습에 이용함. 또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 바이러스 감염표 테스트를 진행함. |
| 11월 13일 | 9:00~11:30 | 과학관 105호 | 지난주에 이어 병원미생물 중 세균, 진균 및 원충 유래 질환에 대해 학습함. 해당하는 병원미생물에 대한 빈칸테스트를 진행했고 지난 주에 정답률이 낮았던 바이러스에 대한 테스트도 재진행함. |
| 11월 20일 | 9:00~12:00 | 과학관 105호 | 면역학 전반부에 대해 학습함. 병원미생물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대해 학습하고 치료제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짐. 이때 지난 2주간 학습한 다양한 병원미생물에 대한 지식을 연결시켜 어떤 메커니즘으로 치료제가 작용하는지 토론해보면서 깊게 이해하게 됨. QUIZ let 앱을 이용하여 감염미생물 테스트를 꾸준히 실행하였고 튜티들의 정답률이 많이 향상됨. |
| 11월 27일 | 4:00~6:30 | 과학관 105호 | 면역학 후반부에 대해 학습함. 면역억제제들이 다양하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또 병원미생물들을 어떻게 검출하는지 검출법에 대해서 학습함. 학생제 part를 이어서 학습함. 학생제가 각각 병원 미생물들을 억제하는 방식을 type별로 나누어 항목화시키며 서로 암기하는 시간을 가짐. -교수님이 주신 기출을 review함 각각 문제풀이를 part를 나누어 풀어온 후 서로 설명해주고, 모르는 개념은 질문을 통해 튜터중심으로 해결함. 또한 마지막으로 여태 암기했던 미생물들을 다시 review하는 시간을 가짐. |



활동 사진



활동 소감

종합의견

미생물학을 이번 학기 비대면 강의를 통해 들었습니다. 비대면 강의인 만큼 스스로 학습하고 복습하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쉽게 휘발되며 특히 방대한 양이 있는 미생물학의 경우 암기를 놓치고 꾸준히 하지 않으면 포기하게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튜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을 계속했고 비대면 강의임에도 각자 복습을 하고 암기를 하며 어떤 대면 강의보다도 더 효율을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튜티들도 다양한 방법제시를 해주어 첫 주에는 제가 생각한 목차정리, 바이러스 감염표로 oral test를 했다면 그 다음 시간부터는 빈칸 test를 만들어와 직접 써보며 스펠링까지도 외우며 test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튜티는 QUIZlet 앱을 알려주며 새로운 암기 방법을 제시해 튜터링하는 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각자 암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튜터링을 하면서 과목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원들이 각자 공부했던 방법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할 수 있어 여러 가지를 배운 것 같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단순히 '시험을 잘보며,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자.' 이 정도의 목표였지만 각자 공부하면서 과목 자체에 흥미를 느껴며 튜터링을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튜티들 모두 다음 학기에도 함께 튜터링을 하며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박태현

목차정리라는 튜터의 학습 방법을 튜티들이 불만없이 잘 따라주어 감사했습니다.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부족한 부분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동기들과 같이 방대한 양을 학습하면서 혼자 공부할 때보다 덜 힘들었고 오히려 재밌게 미생물학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김미행

스스로 목차정리를 해보고 동기들과 의견을 나누어보면서 많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틀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미생물학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과목에도 적용하여 학습하니 효율적인 암기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방식을 이용하여 학습할 것입니다.

박가영

감염표 테스트를 구술, 서술, 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캐치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더 세세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알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에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내용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가 더 잘 아는 부분을 설명해 주면서 시너지 효과가 매우 커 다음 학기에도 튜터링을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수빈

1학기때 수업시간 내용에서 수업만 따라가는데 급급했다면, 이번 학기에는 다양한 학습 방법으로 암기를 하고 review를 해 재미있게 미생물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기출 review를 하면서 시험대비도 더 철저히 할 수 있었고 혼자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은 부분도 동기들과 학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않고 공부할 수 있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김우림

암기에는 재능이 없어 미생물학이 가장 힘든 과목이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튜터링을 하면서 암기 방법에 대한 tip도 얻으며 동기들과 재미있게 진행하여 싫어하던 과목임에도 즐겁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튜터링을 통해 깊이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승범

첫 감염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낮은 성적을 받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꾸준히 암기를 진행했고 다음 테스트부터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미생물학을 공부하는데 기본기가 탄탄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18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전공튜터링]

우수팀 명

크루

팀 원

튜터: 변가빈 (의생명과학과 22학번)

튜티: 정서원, 백은아 (미래융합대학 23학번)

학습 내용

일반생물학 II

학습 기간

23. 10. 11. ~ 1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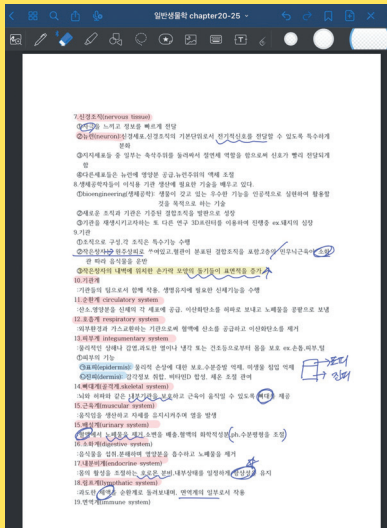


학습 일지

| 날 짜 | 시 간 | 장 소 | 학습활동 내용 |
|---------|-------------|-------------|--|
| 10월 11일 | 16:00~18:00 | 미래관 1층 잡카페 | 전체적으로는 호흡계,순환계,배설계 순으로 활동을 진행을 하였고, 설명을 해줄 때, 여러 동물들의 기관계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그후 우리몸의 기관계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고, 그후, 이와 관련된 우리몸에서 생길수 있는 질병, 관련된 잡지식등을 같이 덧붙여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내용도 같이 짚어주었습니다. 그후, 설명을 들으며 생긴 질문과 가져온 질문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다음 기관계에 대한 설명을 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 10월 30일 | 18:30~20:30 | 도서관 3층 열린마루 | 크게,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대한 차이를 먼저 설명하고, 내분비계의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난후, 각 내분비샘에서 작용하는 호르몬과 그 기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였다. 이때, 이해를 돕기위해 직접 그리거나 전공책에 있는 그림으로 보여주며 설명을 진행하였다. |
| 11월 06일 | 18:30~20:30 | 도서관 3층 열린마루 |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에 대해 먼저 설명을 진행하고, 그 후에, 사람의 생식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였다. 이때, 사람의 생식에 대해 설명을 할때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에 대해 설명을 먼저 진행하고, 각 기관에서의 정자 혹은 난자의 생성과정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였다. 그 후, 수정을 하는 과정과 수정후의 자궁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때, 2시간만에 하기에는 양이 많아 배아 발생과정만 다음 시간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
| 11월 20일 | 18:30~20:30 | 도서관 3층 열린마루 | 배아 발생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나서, 다음 장인 28장 신경계로 넘어갔다. 이때, 28장은 신경계의 구분, 뉴런의 구조, 종류, 신경전도와 신경전달의 기전 및 차이점, 뇌의 구조와 각 구조의 기능에 대해 설명 순으로 진행을 하였다. |



활동 사진



활동 소감

종합의견

이번 튜터링을 통해, 튜티들이 일반생물학을 공부하는 방식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멘티 중 한명은 성적이 향상 되었으며, 한명은 기존에 했던 방식인 암기가 힘들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다. 또한, 매주 진행한 각 챕터별로 주요 개념을 중점으로 설명을 진행했다는 점, 어렵거나 헷갈리는 개념과 원리를 질문을 통해 쉽고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 튜터의 노트를 통해 단순화 하여 쉽게 외우는 방법을 배웠다는 점 그리고 영어와 한글을 매치시켜 설명하는 등 영어 용어를 외우는 것을 습관화 할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뜻깊고 유익한 활동이었다.

김기윤

제가 부족한 점도 많았을텐데, 열심히 믿고 따라와줘서 고마웠고, 멘티들이 전반적으로 참여도가 좋고, 성실한 학생들이었기에 굉장히 저 또한 그런 점에서 배울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학기에, 또 멘토링을 하게된다면, 이 친구들과 같이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기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되지 않았던 개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일반생물학 원서가 아닌 직접 정리하신 노트를 통해 수업이 진행되어서 흥미롭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김기윤

멘토분께서 직접 정리해주신 노트로 수업을 해주셔서 이해하는 방식에 큰 도움이 되었고, 멘토링 시간 외적으로도 학교생활이나 전공에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보여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 멘토링을 통해서 일반생물학 공부를 더 성실히 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다음 학기에도 멘토님과 함께 소모임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18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전공튜터링]

우수팀 명

하이자 드가자

학습 내용

제약산업학

학습 기간

23. 09. 27. ~ 11. 17.

팀 원

튜터 : 유지훈 (약학과 19학번)

튜티 : 곽준구, 김예안, 최민준, 조용진 (약학과 19학번)



학습 일지

| 날 짜 | 시 간 | 장 소 | 학습활동 내용 |
|---------|-------------|-------------|--|
| 09월 27일 | 15:00~17:00 | 과학관 4층 405호 | <p>1 1강: 국내 및 외국 제약회사 순위 및 주요제품 확인하고 사전에 튜티들이 조사한 최근 제약 산업의 트렌드 공유함. 이후 국내 제약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공유함. 교수님이 강조하신 1990년대 이후 제약산업이 비싼한 계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토의를 나눔 (중략)</p> <p>1 3강: NCE, NBE가 무엇인지 각자 사전에 복습한 내용을 공유함. 이후 NCE, NBE 등 NME로 분류되지 못하는 새로운 modality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유함. 모든 튜티들이 공통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체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음. 이외,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강조하신 의약품 임상단계를 같이 복습하였고 전임상시험과 비임상시험의 차이는 무엇인지 토의하였음.</p> |
| 10월 26일 | 15:00~17:00 | 과학관 3층 305호 | <p>1 4강: 의약품 개발과 제품화 개요에 대해 전반적인 복습을 하였다. 먼저, 의약품의 정의와 분류 및 관련 용어들을 복습하였고 이후 신약 탐색연구, 개발 및 허가에 이르는 신약개발의 전단계를 복습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약의 보험급여 등 제품화에 필요한 과정에는 무엇이 있는지 토의를 하였다. (중략)</p> <p>1 6강: 의약품의 연구개발과 특허전략에 대한 chapter를 복습하였다. 워낙 해당 챕터의 양이 방대하고 어려워 본 활동 시 복습하는데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였다. 의약품 특허권의 범위, 발명출원 등록 및 해외출원 방법, 특허조사방법 등을 숙지하였고 이후 해당 챕터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였다.</p> |
| 10월 20일 | 15:00~17:00 | 과학관 3층 305호 | <p>1 7강: 체내동태 평가에 관한 chapter를 복습하였다. PK, PD의 주요 파라미터들에 무엇이 있는지 복습을 하였다. 해당 챕터의 경우 이전에 배웠던 약물동태학 및 약리학 시간에 상당부분 다뤘던 내용들이라 빠르게 복습을 진행을 하였다. (중략)</p> <p>1 이외 저번 활동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차 내용을 튜티들과 범위를 나누어 요약을 진행하였다.</p> |
| 11월 17일 | 15:00~17:00 | 과학관 3층 305호 | <p>1 15강: 원료의약품의 CMC에 관한 챕터를 함께 복습하였다. 개발 단계별 원료의약품의 제조 과정과 원료의약품의 합성 공정 방법 및 예시들을 책으로 복습하였다. 이후 ICH Q3A에 따른 원료의약품 품질관리(ex. 불순물의 기준) 등을 숙지하였고 원료의약품의 공정밸리데이션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공정밸리데이션의 종류와 적용 예시를 책과 교수님 수업자료로 숙지하였다. (생략)</p> |



활동 소감

종합의견

먼저, 튜티들의 개인사정에 의해 처음에 제출하였던 계획서대로 진행이 어려워 계획을 다시 짜 튜터링을 진행하였다. 본래, 계획서에는 저녁 시간에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이라 하였지만 계획을 변경하여 금요일날 수업이 끝난 후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튜터 활동 날짜 이전에 튜티들에게 해당 내용을 복습해 오라고 공지하였고 이후 튜터 활동 당일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주신 내용을 튜티들과 공유하였다. 이외 각 회차 활동 이후 주요 챕터들을 요약하여 함께 공유하였다. 학습 내용 복습 이외 중간, 기말 준비 및 과제를 함께 하기도 하였다.

유지훈

처음에는 튜터가 된다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지만,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가니 튜티들이 잘 따라올 수 있었던 것 같다. 튜터로서 튜티에게 알려준 것도 많지만 튜티들 또한 내가 놓친 부분들을 지적해주어 서로에게 도움이 된 것 같다. 튜티들이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웠다.

곽준구

금요일날 수업이 끝나고 바로 진행한 소모임이라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동기들과 함께 같이 힘을 내내 무사히 4차례 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 같이 공부한 동기들 모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함께여서 좋았다.

김예안

제약산업학 과목 특성상 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기간에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소모임 덕분에 시험기간에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 동기들 모두 고생 너무 많았고 다음 학기에도 소모임 또 같이 합시다.

최민준

금요일 날 수업 끝나고 하는 소모임이라 처음에는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느덧 4차례 활동이 다 끝나서 좋았다. 소모임 할 때는 도움이 될지 잘 못 느꼈는데 막상 중간 성적을 보니 도움이 된 것 같다.

조용진

매 학기 같은 친구들과 소모임을 할 수 있어 좋았다. 이번 학기에도 소모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 좋았고 다음 학기에도 다른 소모임을 같이 하고 싶다!



활동 사진





제18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전공튜터링]

우수팀 명

대박징조

학습 내용

근골격계검사 및 기능해부학

학습 기간

23. 10. 5. ~ 11. 9.

팀 원

튜터 : 안리나 (스포츠의학과 22학번)

튜티 : 송승민, 송은진 (스포츠의학과 22학번)



학습 일자

| 날 짜 | 시 간 | 장 소 | 학습활동 내용 |
|---------|-------------|------------|---|
| 10월 05일 | 12:00~14:00 | 미래관 601호 | [발배뼈 처짐 검사(Navicular drop test)를 자세히 알아보고, 발과 발목의 특수검사를 연습] (중략) 2. 앞목말종아리인대 손상 검사; 전방 끌기 검사(Anterior drawer test) : ATFL의 손상을 확인하는 검사 Anterior drawer test는 발목관절 염좌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대 손상으로 정강뼈와 목말뼈사이의 전방 불안정성에 대한 검사이다. 검사방법은 한 손으로 Tibia를 고정하고 Calca-neus를 앞으로 당겨서 인대의 움직임과 통증반응을 확인한다. |
| 10월 12일 | 11:00~13:00 | 미래관 4층 휴게실 | [Neck의 관절가동범위 파악하기] -움직임의 가동 범위 파악 및 각자의 암기 팁 알려주기 -관절 가동 범위를 파악하는 방법은 총 4가지로 각도계를 사용하는 방법, 경사계를 사용하는 방법, CROM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줄자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각 움직임의 가동 범위: 굽힘(각도계 40도, 경사계 50도, CROM 40도, 줄자 1~4cm), 펴기(각도계 50도, 경사계 60도, CROM 86도, 줄자 18~22cm), 가쪽굽힘(각도계 22도, 경사계 45도, CROM 45도), 줄자 10~13cm), 돌림(각도계 80도, 경사계 60~70도, CROM 60~70도, 줄자 11~13cm) -Tip: 경사계 사용 시에는 모든 움직임에서의 고정팔을 등뼈 1번(T1)에 둔, 목의 가동범위를 평가할 때는 목 외에 다른 부위가 안 움직이도록 등을 고정해야 함, 줄자로 가동 범위를 잴 때는 입을 안 벌리게 주의해야 함. |
| 10월 26일 | 12:00~14:00 | 미래관 303호 | [Shoulder joint의 특수검사 연습하기] 1.어깨 관절의 특수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깨와 관련된 병변들의 종류에 관해 공부하였다. 이때 흔히 발생하는 병변 위주로 공부하였고 크게 발생하지 않은 병변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었다. 진행한 어깨 특수검사 (1. O'brien Test; SLAP 병변 테스트, 2. Sulcus Sign; 어깨 하방 불안정 테스트, 3. Drop arm Test; 극상근 테스트, 4. Neer impingment Test; 어깨충돌증후군 테스트) 2. 3인 1조로 짝을 지어 조사한 병변들에 대해 직접 검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3. 직접 검사를 진행해 보면서 본인의 어깨에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4. 또한 검사 진행 과정에서 조금 더 보충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조원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비슷한 병변들로 분류하면서 확실히 공부가 되었다. |
| 11월 09일 | 11:00~13:00 | 미래관 601호 | [Knee의 특수검사 진행하기] (생략) PCL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는 대표적으로 Posterior drawer test가 있다. 고관절 45도, 무릎 각도는 90도로 굴곡시키고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발 위에 앉아 고정을 시키고 양손을 경골조면에 엄지를 위치시킨 뒤 밀어서 확인한다. PCL의 손상이 있는 경우 통증이 발생하거나 Tibia가 후방으로 밀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건측과 환측의 비교를 통해 판단한다.) |



활동 소감

종합의견

각 관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병변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특수검사를 진행하였다. 조원들과 함께 직접 특수검사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지며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었고 암기 또한 자연스럽게 되었다. 또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것에도 많은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수업 후 복습을 통해 바로 머리에 들어올 수 있었고, 조원들과 함께 같이 정리하고 직접 신체를 움직이며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들이 이미지화되어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었다.

안리나

조원들과 함께 부위별 근육 검사와 특수검사를 연습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으로 공부만 하는 것보다 직접 실습하며 학습하는 활동이 정리와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송승민

꾸준히 공부해야 할 과목 중 하나인 해부학을 조원들과 함께 하면서 동기부여도 되었던 것 같고 재밌었습니다. 솔직히 혼자 공부했다면 지금보단 흥미도 덜 생기고 계속 미루기만 했을 텐데 조원들과 같이 공부하며 해부학에 대한 재미도 느끼고 중요성 또한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송은진

해부학 공부를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하고자 소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수업 후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간으로 수업 중 들었던 내용이 머릿속에 잘 남았습니다. 또한 같이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 자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르는 것을 알려주어 말도 많이 하고 집중도 잘 되었습니다. 소모임 활동이 시험공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 사진





제18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리딩리더스]

우수팀 명

북적북적

학습 내용

독서토론

학습 기간

23. 11. 1. ~ 11. 15.

팀 원

이채연, 김민지, 이혜린, 조창범 (약학과 23학번)



학습 일지

| 날 짜 | 시 간 | 장 소 | 학습활동 내용 |
|---------|-------------|-----------------|---|
| 11월 01일 | 19:00~21:00 | 과학관 601호 | 책을 읽고 각자 발제를 한 후 같이 발제에 대해 토론을 해본 첫 활동이었다. 일단 책 ‘피로사회’는 모두 읽기 쉬운 책은 아니었으나 회독을 하다보면 많이 생각해보게 해주고 얻어갈 점이 많은 책이라고 생각했다. 각자의 전반적인 책의 감상평과 인상깊은 구절에 대해 생각을 나눠보며 자신이 인상깊게 읽은 부분과 상대방이 인상깊게 읽은 부분이 어떤식으로 다른지 알 수 있었고, 두 번째 발제처럼 필자가 사회적 연대를 통한 분노의 표출을 해결 방안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음을 경험하였고, 각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들으면서 논리적으로 서로를 설득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또한 이런 시간을 통해 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 |
| 11월 08일 | 16:00~18:30 | 과학관 220호 | 북적북적의 두 번째 활동이었다. 이 활동에서는 첫 번째 활동이었던 ‘피로사회’에 대해 토론을 했던 것과 같이 책 ‘아몬드’를 읽고 각자의 전반적인 책의 감상평과 인상 깊은 구절에 대해 생각을 나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인상 깊게 읽은 부분과 상대방이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 알 수 있었다. ‘피로사회’와는 다르게 ‘아몬드’라는 책은 생각해볼 거리가 바로바로 보이고 쉽고 재미있게 읽으며 이해할 수가 있었다. 때문에 힘든 학업 생활 중에 머릿속을 환기할 겸 감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고 조원들의 의견이 모인 뜻깊은 활동이었다. |
| 11월 15일 | 18:30~20:30 | 송우리 카페 (투썸플레이스) | 이 모임은 북적북적의 세 번째 활동이자 마지막 활동이었다. ‘물속의 철학자들’을 읽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감상평과 인상 깊은 구절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말에 공감하기도 하고, 자신의 다른 의견을 말하며 생각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이 도서는 첫 번째 활동 도서였던 ‘피로사회’와 같은 철학책이지만, 어려운 전문 용어를 나열하기보다 오히려 철학이 일상에 흘러넘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흔히 철학책에 대해 갖고 있던 우리의 편견들을 깨부수는 도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철학책임에도 불구하고 문학 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표현법들이 자칫하면 단조롭게만 느껴질 수 있었던 이 도서에 활력을 불어넣은 듯했다. 너무 어려웠던 ‘피로사회’와 쉽게 읽혔던 ‘아몬드’, 그 중간에 있는 도서였기에 이번 학기의 마지막 활동 도서로 적합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상에서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도서이기에 각자 한 번쯤 해보았던 고민이지만, 철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도 철학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



활동 사진



회차별 감상평

| | |
|----|---|
| 1차 | 같은 책을 읽고 같은 활동을 했음에도 이렇게 각기 다른 감상문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을 때 각자 인상깊었던 부분이 달랐다는 것을 실감하고 이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과정에서 책에 대해 한 단계 더 이해할 수 있었다. “피로사회”라는 도서가 철학적인 책이기에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다. 이미 많이 친하던 동기들이었지만 서로의 가치관을 나눌 정도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없었었는데 이 책을 통해 철학적인 고민들을 나누고 함께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
| 2차 | 역시나 같은 책을 읽고 함께 활동을 했음에도 다들 각기 다른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 또 한번 놀라웠다. 서로의 감상문을 읽는 과정이 낮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조원들의 서로 다른 관심사와 생각을 알 수 있어 가치 있는 활동으로 느껴진다. 감상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1차의 ‘피로사회’보다 아래래도 2차 책인 ‘아몬드’가 가볍고 잘 읽히는 책이기에 조원들의 감상문 또한 한층 가볍고 자유로운 생각이 담겨있었다. 청소년 필독 도서인 만큼 조금 순수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에 가까운 생각들이 담긴 감상평들이 인상깊었다. 이 때문에 1차와는 반대의 느낌인 가벼운 책을 선정하길 잘했다고 조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역시나 재미있고 가치 있었던 2차 활동이었다. |
| 3차 | 본 책으로는 감상문을 작성하지 않았기에 책에 대한 조원 각각의 감상평을 이곳에 담겠다. (생략) |



활동 소감

종합의견

마지막 활동에서 나누었던 조원들의 종합적인 소감을 정리해보았다. 먼저 평소 잘 알고 함께 수업을 듣는 동기들과 진행한 활동이었기에 책을 읽는 것에 의미를 두었지 동기들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막상 활동을 시작하고 보니 책에 대해 알게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었지만 더욱 크게 알게 된 것은 동기들의 가치관과 생각이었다. 책은 우리에게 대화할 거리를 주는 좋은 매체가 되었다. 특히 화면 속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요즘, 동기들과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활동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 대화의 질 또한 평소 나누어보지 못한 깊은 대화였기에 더욱 가치가 있다. 책에 대한 전반적인 감상평부터 인상 깊었던 부분, 책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 그 생각에 대한 조원들의 생각, 거기에서 이어져 나가는 서로의 생각에 대한 의문들까지. 의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공감하면서 함께 성숙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더라도 이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조원들의 의견이 모였을만큼 뜻깊었던 활동이었다. 또한 이번 활동을 바탕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개선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먼저 발제를 하루 전날 미리 공유하여 그 것에 대해 미리 생각해 오기로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더욱 간결하고 진심으로 가깝게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이처럼 이번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토대로 활동을 개선하여 매년 이어나간다면 서로에게 더욱 좋은 성숙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제18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리딩리더스]

우수팀 명

책먹는 해룡이

학습 내용

독서토론

학습 기간

23. 10. 26. ~ 11. 30.

팀 원

이현영, 한승혜, 지수경, 최다원 (약학과 20학번)



학습 일지

| 날 짜 | 시 간 | 장 소 | 학습활동 내용 |
|---------|-------------|-----|---|
| 10월 26일 | 17:00~19:00 | 대면 | <p>독서활동의 목표: 인류의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선정도서: 침묵의 봄</p> <p>활동 내용</p> <p>(생략)</p> <p>[토론결과 요약]</p> <p>봄은 본디 우리에게 생명의 탄생이 활발한 계절이며 꽃이 피고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활기찬 이미지이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내고 사용한 화학약품을 비롯한 독성물질로 인해 봄은 더 이상 활기찬 계절이 아닌 침묵만이 감도는 계절이 됐다. 작가는 모순적인 단어를 배치하여 독자들에게 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또한 이 책을 읽고 난 후 봄을 떠올릴 때마다 더 이상 생명의 봄이 아닌 인간이 초래한 침묵의 봄을 상기시킨다.</p> <p>(생략)</p> |
| 11월 09일 | 17:00~19:00 | 대면 | <p>독서활동의 목표: 유능한 약사가 되기 위한 약 파헤치기 선정도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p> <p>활동 내용</p> <p>(생략)</p> <p>2) '식후 30분에 읽으세요'를 읽고 알게 된 약 지식 3가지씩 말하기</p> <p>- 책을 읽고 얻게 된 새로운 지식을 공유했습니다.</p> <p>[새롭게 알게된 약 지식]</p> <p>1. 여러 종류의 약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것을 다제 처방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다제 처방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p> <p>2. 우루사는 피로회복제라기보다는 소화제에 가깝다.</p> <p>(생략)</p> |
| 11월 30일 | 17:00~19:00 | 대면 | <p>독서활동의 목표: 배운 약물을 복습하고 복약지도 맛보기 선정도서: 프셉마음-약물편</p> <p>활동 내용</p> <p>(생략)</p> <p>2) '프셉마음'을 읽고 유능한 약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양은 무엇일지 토론했습니다.</p> <p>1. 약사는 매일 수백 건의 처방전을 검토한다. 따라서 약물에 관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p> <p>2. 약사는 약물 조제만큼 중요하는 것이 복약지도이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을 상대할 수 있는 소통력이 필요하다.</p> <p>(생략)</p> |



회차별 감상평

| | |
|----|--|
| 1차 | <p>[조원들의 활동 소감]</p> <p>'과거에 읽었을 때와 다르게 독성학, 약물학 등 수업을 듣고 난 후 읽으니 화학약품들의 심각성이 더 크게 다가왔다.'</p> <p>'평소 독서활동을 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활동계기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좋았다.'</p> <p>'친구, 가족에게 추천해주고 싶을 만큼 교육적이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책이었다.'</p> <p>'우리끼리 환경을 위한 활동을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텀블러 사용한다거나..'</p> <p>이번 활동 계기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달아 조원들끼리 환경운동에 동참하고자 플라스틱 컵이 아닌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 각자 집에 있는 폐의약품을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기 등을 실천하였습니다.</p> |
| 2차 | <p>[조원들의 활동 소감]</p> <p>'약복용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했다.'</p> <p>'개발되는 약 종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외모지상주의가 되어간다는 것을 느꼈다.'</p> <p>'제약회사가고 싶었는데 실태를 알고 나니 걱정된다'</p> <p>'제약업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중립을 지키려고 했다.'</p> <p>이번 활동을 마친 후 친구들에게 새롭게 알게 된 약 상식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p> |
| 3차 | <p>[조원들의 활동 소감]</p> <p>'배웠던 약물을 쉽게 리뷰하는 느낌이었다'</p> <p>'복약지도에 도움될 책이다'</p> <p>'여러 케이스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다'</p> <p>'의약품이 여러 분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류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다름을 배웠다.'</p> <p>이번 활동을 계기로 조원들과 복약 지도 예행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약사의 직능은 처방, 제약, 용약에 관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약사는 약학 지식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야하고 적절한 복약 지도를 위한 지식 습득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약물을 관리하는 만큼 약물에 따른 분류와 분류에 따른 관리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p> |



활동 소감

종합의견

평소에 독서를 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정기적으로 조원들과 만나 독서를 하니 의미 있고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생각들이 떠올랐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더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책에서 얻은 내용을 실제 경험과 연결 짓기도 하며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관점과 해석을 듣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책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책에 대한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리딩리더스 활동에 참여하여 좋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활동 사진





제18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영글클럽]

우수팀 명

영화보여조

학습 내용

영화 감상 및 토론

학습 기간

23. 11. 15. ~ 11. 29.

팀 원

손재은, 박한준, 연세랑, 서예빈, 김현서 (상담심리학과 22학번)



학습 일지

| 날 짜 | 시 간 | 장 소 | 학습활동 내용 |
|---------|-------------|-------|--|
| 11월 15일 | 17:00~19:00 | 강의실 | 팀원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스파이더맨:노웨이 홈이라는 영화를 보았고,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짧게 나누었다. |
| 11월 23일 | 19:48~21:52 | ZOOM | 팀원들과 함께 ZOOM으로 죽여주는 여자라는 영화를 보았고,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나누었다. |
| 11월 29일 | 21:00~23:00 | 팀원의 집 | 팀원들과 함께 한 팀원의 집에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았고,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나누었다. |



활동 소감

종합의견

같은 영화를 본 뒤에도 팀원들마다의 감상이 다 다른 것이 신기하였고, 이러한 점이 영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부분이었다. 평소 학업으로 인해 시간을 맞춰 영화를 보러 가거나 함께 만나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영글클럽 활동을 통하여 팀원들과 함께 영화를 보게 되어 매우 만족스럽고 뜻깊었다. 또한 서로의 감상평을 나누며 서로에 대해서도 더욱 잘 알게 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나누며 서로의 다채로운 느낌을 공유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영화를 보는 시각을 훨씬 넓힐 수 있었다. 영화를 보고 우리의 진로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신기하였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영화 속 캐릭터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니 수업에서 배운 내용도 더욱 이해가 잘 되었고 기억에 오래 남았다. 또한 영화를 본 뒤 감상평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상문을 작성하여 공유를 하니 영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도 정리할 수 있었고 영화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회차별 감상평

| | |
|----|---|
| 1차 | <p>팀원들과 각자의 감상문을 공유하였는데, 같은 영화를 본 뒤에도 집단원들마다의 감상이 다른 것이 신기하였다. 영화를 보며 느낀 것들을 서로의 감상문들을 보며 나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영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이 영화가 색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 시리즈와 마블 영화를 잘 보지 않은 팀원과 스파이더맨과 마블 영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팀원 등, 각자 영화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달랐는데 이런 점이 오히려 영화에 대해 나눈 감상평을 조금 더 다채롭게 나눌 수 있는 포인트가 되었다. 또한 서로의 감상문을 통해 팀원의 성격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도 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p> |
| 2차 | <p>이번 영화는 감상문을 작성하지 않아 영화를 본 뒤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팀원들끼리 나누었는데, 종합적으로 나온 감상평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소 알지 못했던 노인들의 성생활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영화였다. 영화 속 인물의 다채로운 감정을 세심하고도 이해가 쉽게 그려냈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다들 이야기하였다. 또한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들 너무 입체적이고,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 더욱 새롭게 느껴졌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진로인 심리학과 관련하여 영화 속 노인들을 상담한다면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도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영화 속 주인공은 어떤 성격이고 어떤 문제를 다루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며 감상평을 마무리하였다.</p> |
| 3차 | <p>팀원들과 짧게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나눈 뒤 각자 자신이 쓴 감상문을 공유하였는데, 다들 영화에 대한 해석과 분석이 감상평을 짧게 나눌 때보다 감상문에서 더 발전되어 놀라웠다. 3차 때 본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영화에 숨겨진 의미가 많은 영화였는데, 팀원들과 함께 영화 속 의미와 해석을 찾아가며 영화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어 뜻깊었다. 이번 영화는 영화에 대한 팀원들의 별점 차이가 컸는데, 이러한 점도 영화에 대한 시각을 더욱 넓혀주었고 다채롭게 느껴졌다. 서로의 감상문을 공유하며 서로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는 시간이었었고, 영화에 대해서도 전보다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었다.</p> |



활동 사진





제18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2023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영글클럽]

우수팀 명

영화(花)를 피우자

학습 내용

영화 감상 및 토론

학습 기간

23. 11. 1. ~ 12. 1.

팀 원

전채민, 오채현, 이해원, 신은서, 서종우, 심규범 (약학과 23학번)



학습 일자

| 날 짜 | 시 간 | 장 소 | 학습활동 내용 |
|---------|-------------|----------|--|
| 11월 16일 | 17:00~20:00 | 과학관 102호 | 모여서 OTT로 영화를 다 같이 본다. (혹은 미리 보고 토론을 시작한다.) 토론주제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는 나치의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아들을 지키려던 아버지의 이야기이다. 영화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쟁은 정말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다. 우리는 이 전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유롭게 토론하자.’로 토론하며 각자의 의견을 공유한다. |
| 11월 20일 | 17:00~20:00 | 과학관 102호 | 모여서 OTT로 영화를 다 같이 본다. (혹은 미리 보고 토론을 시작한다.) 토론주제 ‘포레스트 검프는 선천적 지능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 계속 앞으로 달려나가는 인물이다. 각자 인생을 사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자신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은가?’로 토론하며 각자의 의견을 공유한다. |
| 11월 22일 | 17:00~20:00 | 과학관 102호 | 모여서 OTT로 영화를 다 같이 본다. (혹은 미리 보고 토론을 시작한다.) 토론주제 ‘매트릭스는 AI가 인간을 지배한 세상을 그리고 있다. 현실에서도 AI는 계속 발전 중이다. 매트릭스 같은 상황이 진짜로 올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AI에 대해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로 토론하며 각자의 의견을 공유한다. |



회차별 감상평

| | |
|----|--|
| 1차 | 토론하면서도 느꼈지만, 같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같은 의견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에 놀라웠다. 몇몇은 ‘전쟁’에 초점을 맞추었고 몇몇은 ‘인생’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몇몇은 종합적인 작품성에 대해 작성하였다. 같은 영화임에도 감상문은 각각에 다른 내용이 담겼고, 심지어 비슷한 주제를 중심으로 쓴 사람들도 서로 다르게 표현하여 감상문을 나누는데 지루함이 없었다. |
| 2차 | 1차 감상문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영화지만 감상문 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담겨있었다. 교훈적인 내용이 담긴 내용이다 보니 각자의 생각들이 전보다 더 두드러졌다. 몇몇은 심지어 인상 깊었던 장면도 비슷했지만, 그에 담긴 내용을 해석하고 그에 관한 생각은 꽤 차이를 보였다. |
| 3차 | 1, 2차와 달리 감상문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토론을 하기 전에 서로의 감상을 나누었다. 각자 영화의 작품성이나, 영화 속에 담긴 여러 은유에 대해 감상을 나누었다. 같은 영화더라도 각자 느끼는 부분은 달랐고, 영화 속 담긴 은유를 해석하는 방향도 각자 차이가 보였다. |



활동 소감

전채민

영화를 보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도 나눠 보고, 서로의 생각도 들어 보면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토론을 거치면서 각각의 영화가 본인에게 더 가치 있게 되는 시간이 된 것 같다. 이해원: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 영화 소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3개의 영화 중 나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팔 전쟁과 연관 지어 전쟁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꾸준한 영화 감상을 통해 내 취미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신은서

평소 흥미 위주의 영화를 즐겨 보았기에 영화를 감상하고 그 느낀 점을 나누는 활동이 낯설었다. 그러나 소모임 조원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같은 장면이라도 느끼는 점이 다르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앞으로도 예술 작품 감상과 공유를 취미로 가지고 싶다.

오채현

영화를 자주 보지 않는 나에게 이번 소모임은 영화를 세 편이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조원들과 함께 영화 그 자체에 관해서 혹은 관련 이슈들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나오는 다른 생각들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다. 다음 학기에도 소모임을 함께 한다면 좀 더 재미있는 영화를 선정하고 많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심규범

영화 감상을 주로 방학에만 하는 편이었던 나에게 이번 소모임을 통해서 학교 생활 중에도 영화 감상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혼자서 영화 감상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들을 듣는 것이 사고의 확장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다음 학기에도 영화 소모임을 통해서 더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접해보고 싶다.

서종우

영화 감상을 시간 내 해보기 어려웠는데 이번 소모임을 통해 동기들과 함께 영화를 보며 영화에 대한 감상과 평가를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감상해 보면서 지식의 깊이를 늘리고 싶다.



활동 사진

